







그 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니 삼이 하나씩 하나씩 지평선에 솟아올랐다.

자크 데리다 (안 뒤푸르 망렐) 1997년 작 < 환대에 대하여 > 동문선 PP 25-26  
내가 보기엔 세미나 내내 인간의 문제인 것으로서의 "어디?"라는 물음의 계시에  
귀착한다. 이 물음은 스피크스가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 곧 견고  
있는 한 인간에게 건넨 물음이라는 점이다.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 이외엔  
고유한 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 인간에게,  
그태도 자기 그림자를 앞장 세워 가고 있는 인간에게. "어디?"라는 물음은  
나이가 없고 타동사적 이다.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 거처에 대한, 무-장소에 대한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제기하며, 또한 사유를 대상에 대한 그 내포관계에서  
그 기능 자체에 의해 배척한다. 진리라고는 슬래잡기 노래 가운데 뛰어가는 슬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고, 진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흔적이다.

구나 작가가 필사한 문장들  
출처: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김경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정모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Berlin, street of art 2015>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Good-Bye>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LED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I was here>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박문희 작가와의 대화  
출처: 아트플랫폼 제공

000 000 0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 000 00 0000 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 00  
 0 00. 00 00 0000 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00 00, 00 000  
 0 000 000 000 000 000000 00. 00 00 000 00000 000 0 0 000 000 000  
 00 00. 00 000000 000 000000 000 000 000 0 00 000. 000 000 0 000  
 0 0000 000 00000 000 00000 000 '00' 00000 000 00 00000 000 000? 0  
 00 000 00 00.



모 시라(Mo Sirra),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  
사진출처: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모 시라(Mo Sirra)의 작품 '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는, '1000개의 램프가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램프를 여러 개의 나무 테이블 위에 배치하여, 수많은 램프가 켜져 있을 때조차도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과잉 소비와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작품은, 모 시라가 '1000개의 램프가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램프를 여러 개의 나무 테이블 위에 배치하여, 수많은 램프가 켜져 있을 때조차도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2018 인천문화재단 <아트 프로젝트>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천문화재단, 6층 전시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관람료 없음).

이 블로그는 3.0 버전입니다  
(문의, 댓글 <http://expert4you.blog.me/>)

□□□ □□□□□□ □□ □ □□ □ □□...

□□□□□□ □□ □□□□ □□ ‘□□□ □□ □□’



지난 4월까지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근현대 베스트셀러 소설들만을 모아 전시한 특별전 '소설에 울고 웃다'가 진행됐다. 출처 : 한국근대문학관

□□□□ □□□□ □ □□□□ □□□□ □□ □□□□□□□□□□ □□□□. □□□□ 2017□ 9□□□ □ □ 4□□□ □□□□□□□□ □□□□□□□□ □□□ □□□ ‘□□□□ □□ □□’□ □□□□□□. □□ □□□□ □□ □ □□□ □□ □□ □□□□ □□□ □□□ □□□□ □□□□.

□□□□ □□□□□□□□ 1980□□□□ □□□□□ □□□ □□□ □□ 24□□ ‘□□□□□□’ □□□ □□□ □□□ □□□ 80□□ □□□ □□□ □□□ □□□□.





## 고단한 현실을 견딘 힘이 되다



비록 일제 식민지이긴 했지만, 1930년대는 한국 근대문학이 화려하게 꽃핀 시대였다. 일반 단행본은 물론 다양한 문고본과 전집류도 인기리에 발간되었으며, 사회주의 경향의 작품들까지 잘 읽히는 등 근대 출판시장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들 작품들을 사서 읽어 줄 독자층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갔다. 브나로드 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계몽을 주제로 한 이광수의 『흙』과 사회주의 시각에서 농촌의 현실을 그린 이기영의 『고향』, 육체적 사명을 초월한 정신적 사명을 강조한 『사랑』은 모두 발간된지 채 5년도 못돼 각각 8판과 6판, 9판을 찍었을 정도로 많이 읽혔다. 특히 일제 통치가 정점 군국주의로 바뀌게 되는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수십 판을 찍는 초 거대 베스트셀러가 등장한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을 그린 박계주의 『순애보』는 판당 1천부에서 금기어 해방 직전에는 5천부를 발행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끈 작품이다. 『유물관』이라는 한국형 탐정이 활약하는 김내성의 『마안』은 1950년대 중반까지 33판을 거듭할 정도로 장안의 자가를 높인 탐정소설이다. 당시 독자들은 이런 소설들을 읽으며 점점 극심해지는 일제 탄압의 현실을 견뎌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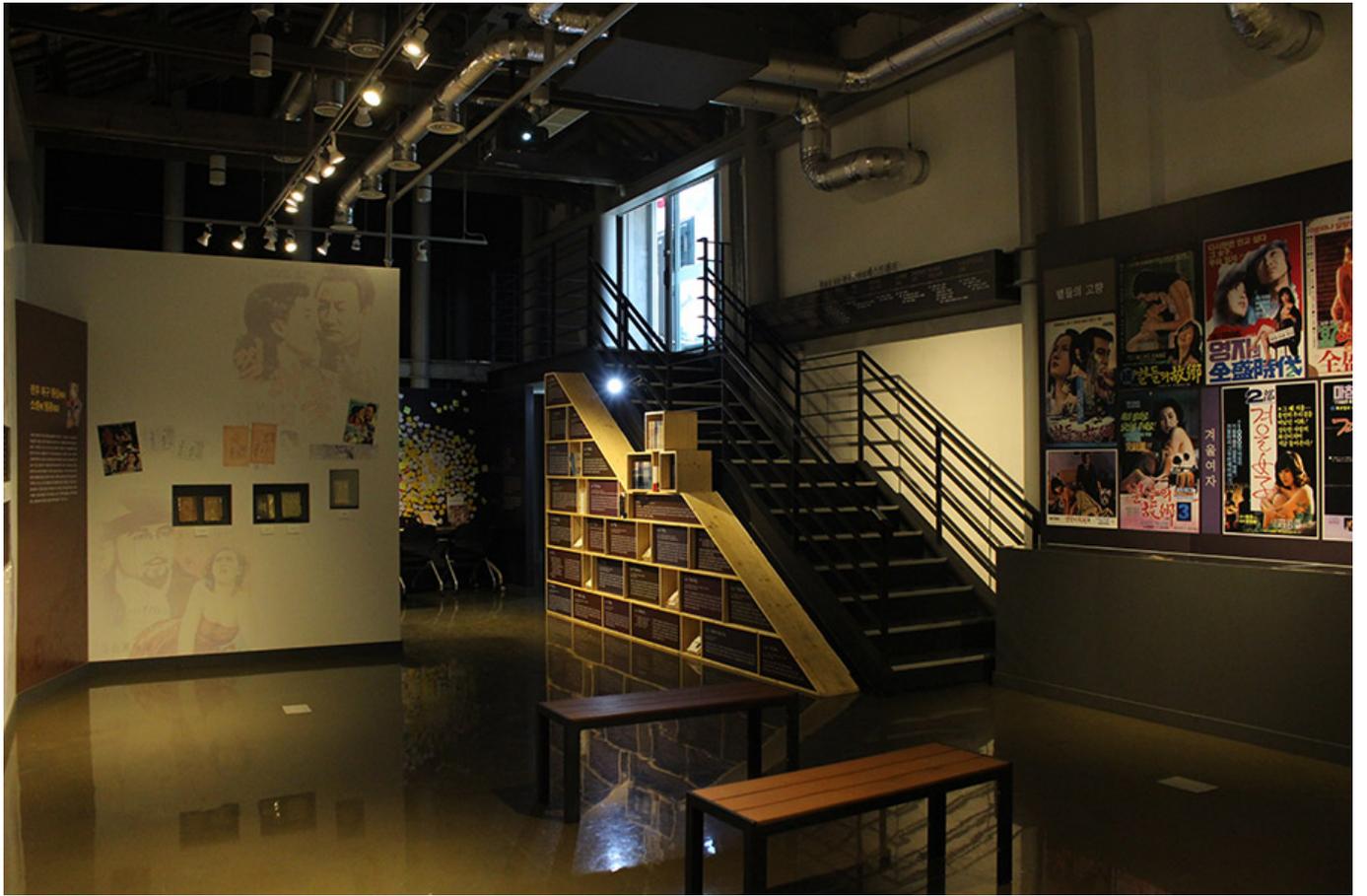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데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된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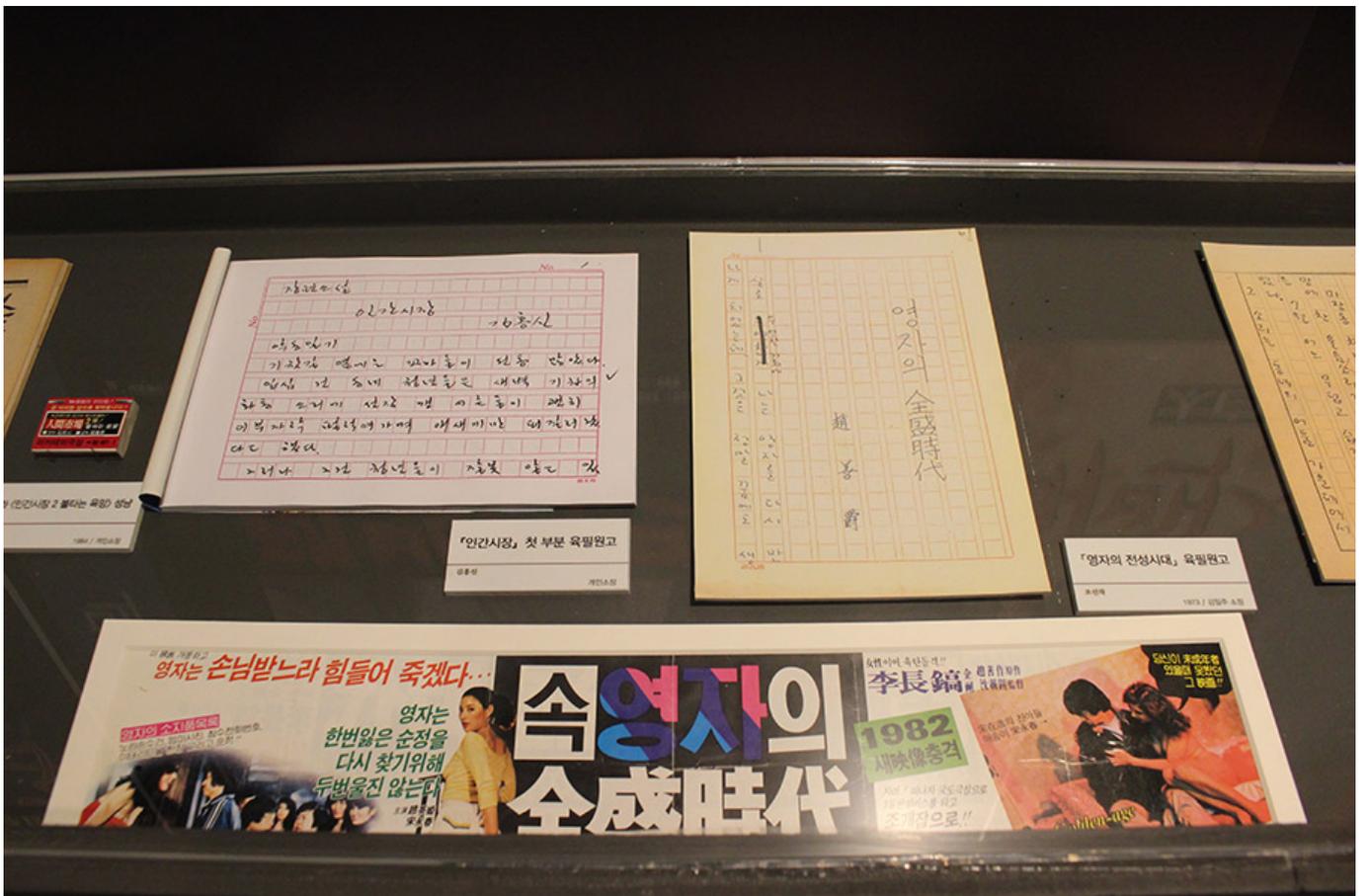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베스트셀러(best-seller)란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많이 읽히는 것만으로는 '베스트셀러'라 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문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들의 쓰던 애장품도 함께 전시됐다.  
출처 : 취재기자 정해량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는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2014년 11월 14일 작성된 글입니다.

0.00 / 000000 3.0 0000 000  
marinboy58@naver.com

# 0000 00 0000 0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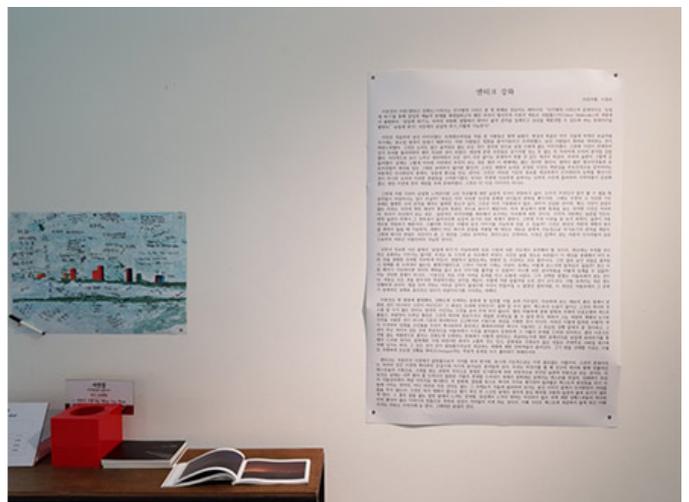
000 000 00 000 <0000 0000>

000000 E1 00 0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 00 00 0000 00 0000. 00 00000 0000 0000 00 00000000. 00 000000 000000 00 000000 0 00 00 0000000 000000 0000 000000. 0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 00 00 00 0000 0000000 0000 00 0 0000, 000000 00 00 0000 0000 000000. 00 0000 00 0000 00 0000 0000000.

00000

0000

00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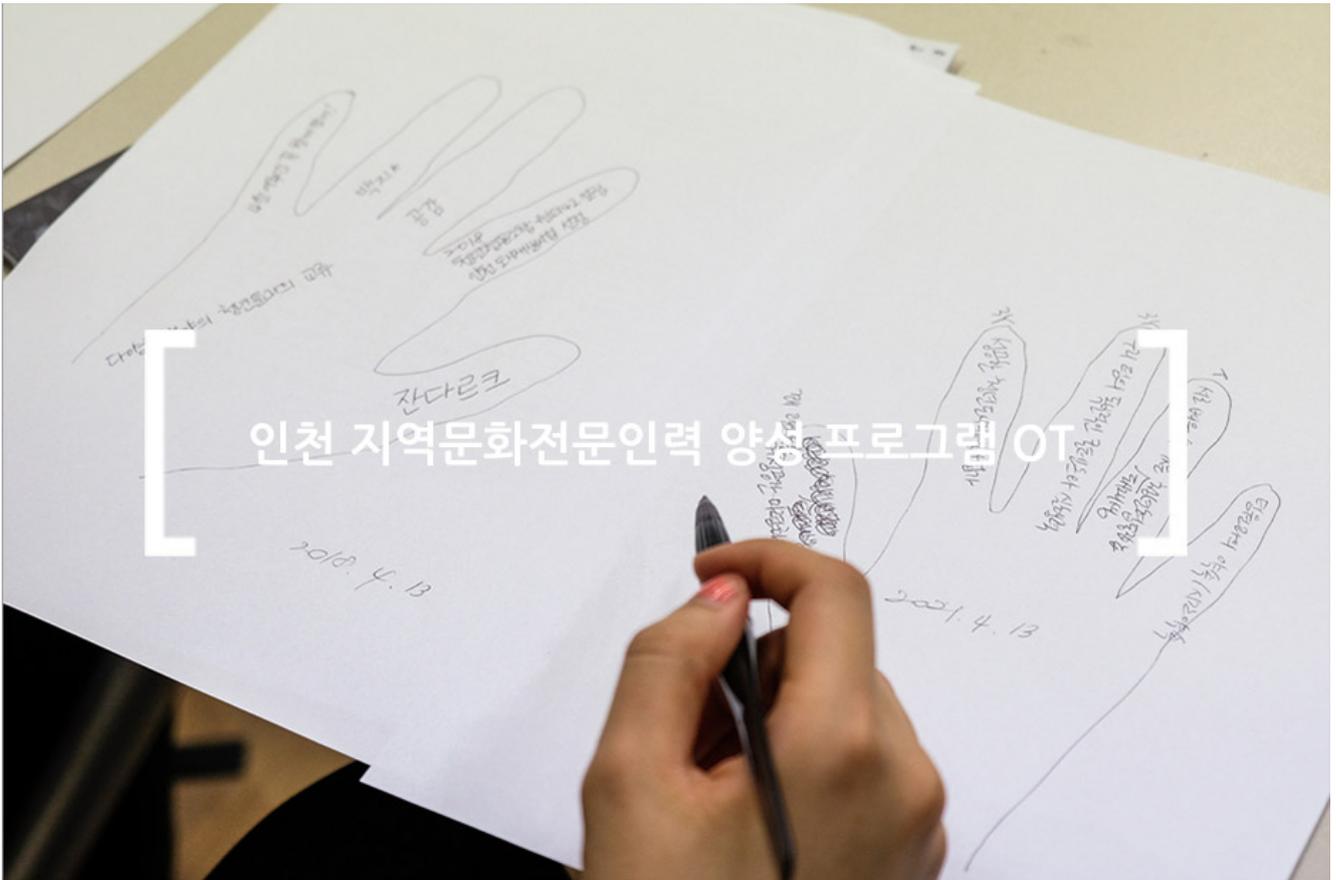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04.14(0) -04.26(0)  
00: 00000 000(00000 00 00000238)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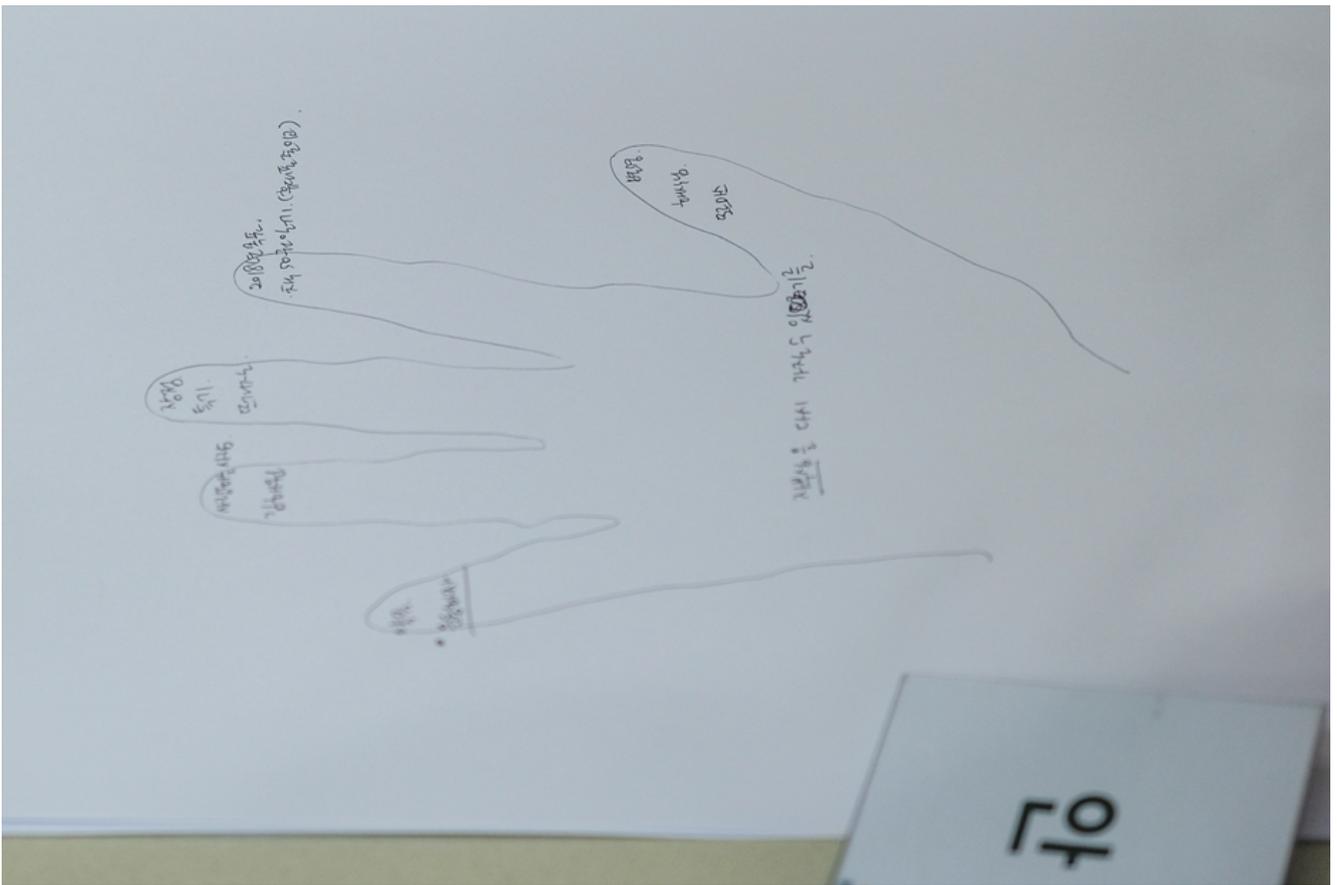
☐☐: ☐☐☐☐☐☐3.0 ☐☐☐

# ☐☐ ☐☐☐☐☐☐☐☐☐☐ ☐☐ ☐☐☐☐ OT



인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 000 000 000 00 00 0 0000.

00: 2018. 04.13(0), 0060~90  
 00: 000000 000000 H0 20

00/00: 000000 00000

00: 0000003.0 000

# ‘0000000000’ 0000 <0>

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의 28번째 0000 ‘0’



지난 4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기차길옆작은학교'의 28번째 정기공연 '집'이 열렸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0 40 70 00000000 C0 000000 0000 00 00 000 0000 00 00. 00 4000 000  
'0000000000'의 000000 00 00 00000 00 00000 00000 0 00 000.  
00000 2800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000 0000000 000000 00 00000000 00000000 0000 0000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좌), 기차길옆작은학교(우)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이 공연은 기차길옆작은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석동 쪽방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다.



인형극 사이사이에 타악패와 춤패, 노래패의 공연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재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 취재기자 정해랑

이 공연은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공연을 하며, 2시간 동안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이 공연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춤패의 무대에서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출처: 기차길옆작은학교

010-1234-5678 / 010-1234-5678 3.0 010-1234-5678  
marinboy58@naver.com

#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 김내성, 『청춘극장』

『청춘극장』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이 소설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이 소설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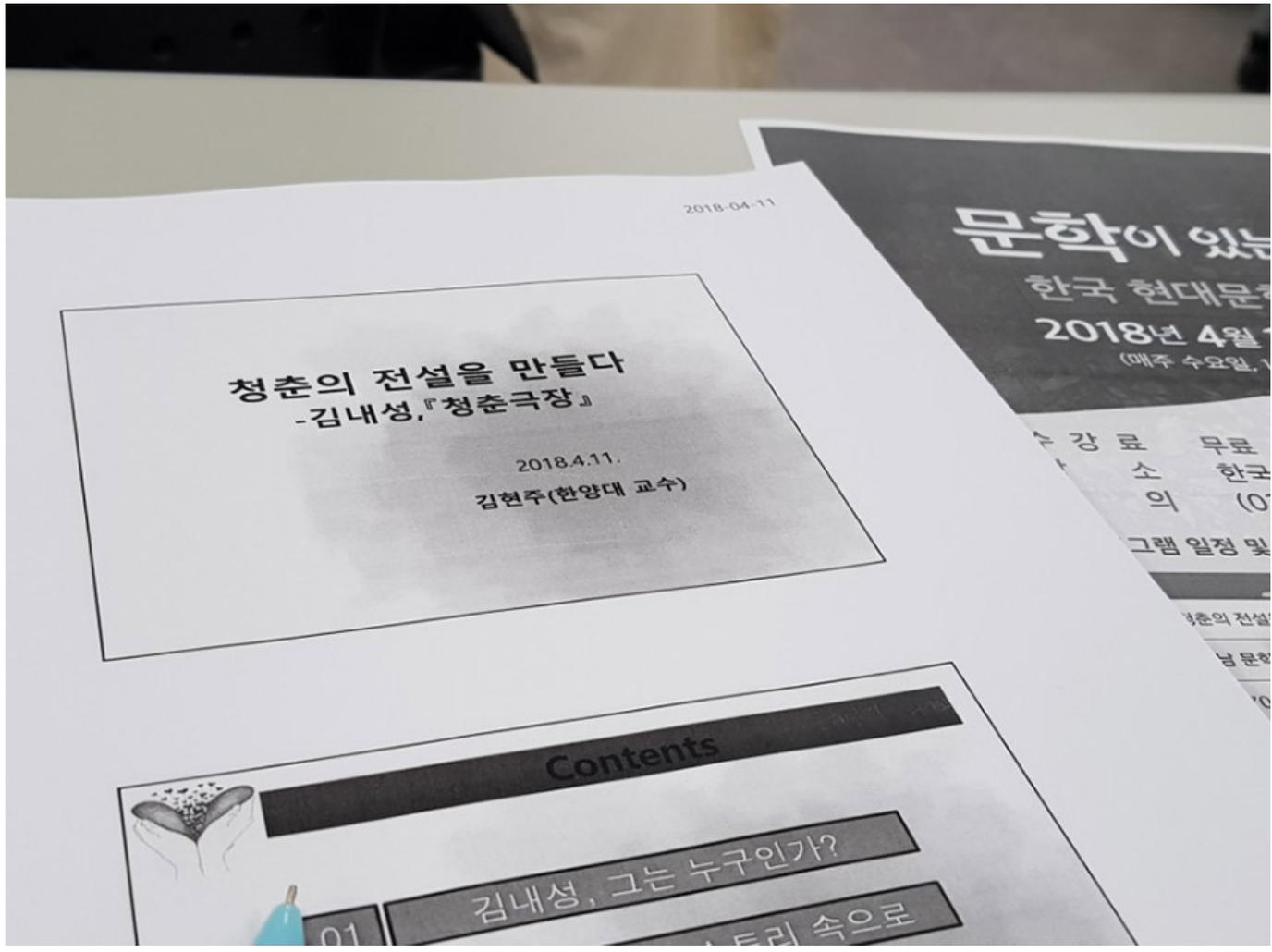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청춘극장』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이 소설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이 소설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청춘을 다룬다.

.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되는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극장'을 소개하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그리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등을 소개한다.

2018년 4월 11일 -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이 프로그램은, 김내성 교수의 '청춘극장'을 소개하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그리고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등을 소개한다.

2018년 4월 11일 - '청춘의 전설을 만들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공연이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공연 시작 전 연극 비온새라이브 무대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공연이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극단 작은 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 사진은 극단 작은 방의 공연 중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배우가 검은색 계단 위에서, 한 배우는 selfie 스틱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붉은색 의자에 앉은 배우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여러 개의 나무 의자가 있고, 그 중 하나에는 노란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어둡고, 조명은 배우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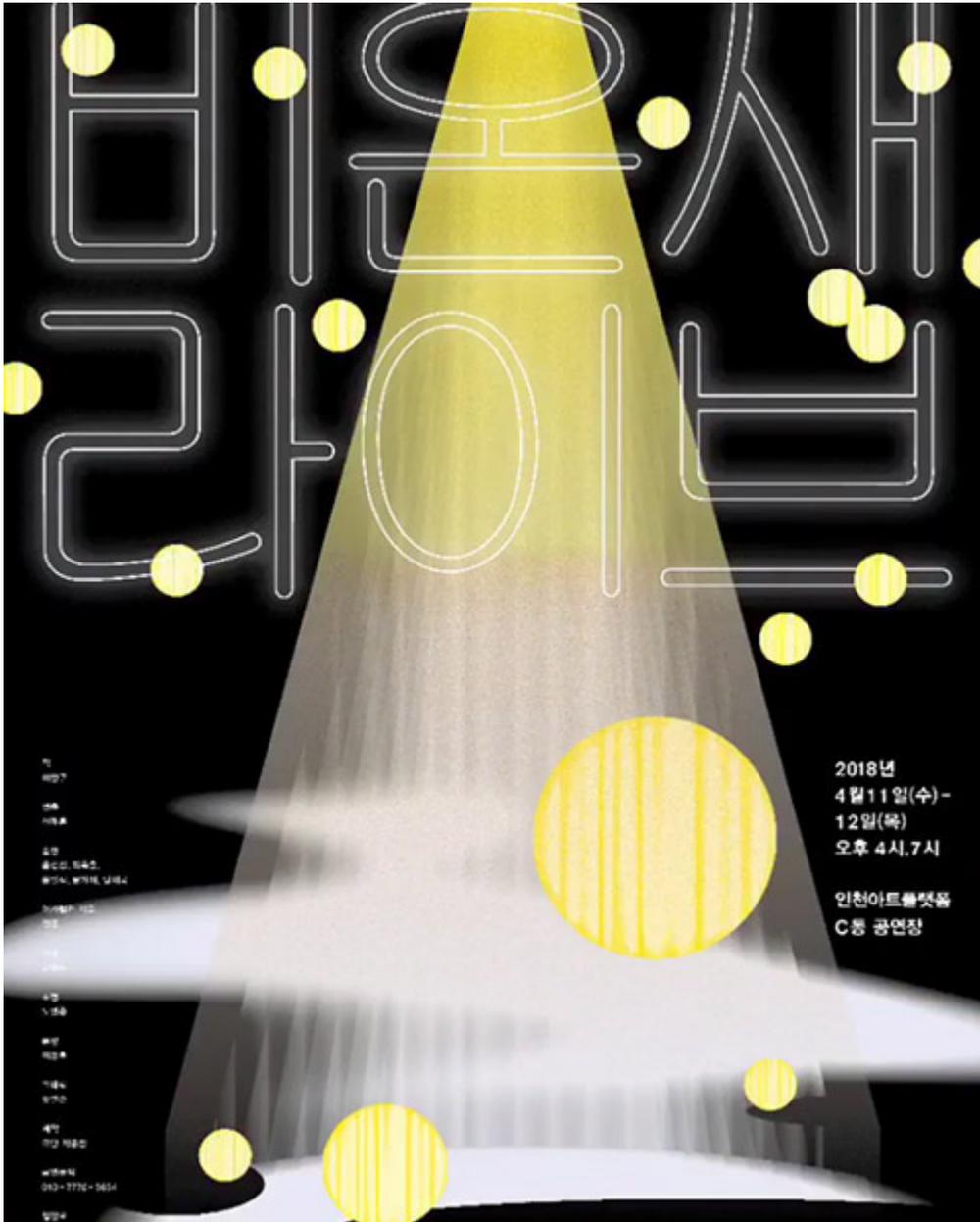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3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 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어떤어떤.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재미를 느낀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편리함의 그림자도 있다. 그것은 바로 '몰입'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현실을 잊어버리고, 가상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이 몰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지만, 실제로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재미를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지만, 실제로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재미를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비온새라이브 포스터  
 사진출처: 극단 작은방 인스타그램(box\_room)

□□□□□□

□ □□□

□□ □□ □□□

□□ □□□□□□ □□□ C

□□ 2017.4.11(□) ~ 12(□) □□ 4□, 7□

□. □□/

□□□ □□□□□□3.0 □□□□

# 2018 □□□□□ □□□□□□□ □□□□□

2018 □□□□□ □□□□□□  
@□□□□□ □□□□(2018/04/07, 05/05, 06/09, 08/25)

□□□□□□3.0 □□□□ □□□